

19/20 WS 독일 TUHH 교환학생 활동 보고서  
건설환경공학부 김유진

저는 2019년 2학기에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TUHH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한 것은 관심있는 분야의 학문이 국내에서는 아직 잘 다뤄지지 않아서 경험해보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또 곧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자극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갖고싶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부터 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경험해야 했고 크게 4가지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원 전 준비

① 지원교 선정

사실 저는 교환학생 지원을 모집 공고가 뜨기 한 달 전에 결정해서 어디에 지원할지 늦게서야 생각하게 되었고 어학성적도 급하게 준비하다보니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각자의 교환학생 지원 목적이 여행, 해외 학업 경험, 휴식, 대학원 준비 등등 다양하고 또 그 목적에 따라 지원교의 위치나 제공하는 커리큘럼 등 각자 중점을 두는 항목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들이 좋지만 교환학생 생활동안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적에 맞는 학교가 어학성적, 이때까지 이수한 학점, 성적, 혹은 몇 학년인지까지 등등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어학성적 준비

저는 한 달 전부터 토플을 준비해서 추가모집기간에 성적을 증빙할 수 있었지만 여유로운 지원을 위해서는 더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경우 독일어권 학교들에 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가게 된 TUHH에서는 학부 수업을 들을 경우 거의 모든 수업이 독일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어 성적을 요구했지만 석사 수업을 들을 경우는 영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석사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주로 전공 수업을 거의 다 들은 3, 4학년들)에게만 가능한 것 같았고, 저는 전공을 거의 다 들었었기 때문에 토플만 제출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어가 주 공용어가 아닌 나라의 경우 석사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영어성적만으로 지원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국 전 준비

- 비자 : 제가 가게 된 독일의 경우 쉥겐 조약 덕분에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고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 독일에 가서 90일이 되기 전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무비자인 상태로 출국하였습니다.

-기숙사 신청 : TUHH에서 제공하는 학생 기숙사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합격 후 관계자에게 오는 안내 메일을 따라 정해진 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hamburg의 경우 집 구하기가 어렵고 기숙사 또한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우니 신청 시작일 당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연락이 오니 날짜를 놓치지 않고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월당 300유로~450유로까지 다양하고, 학교가 위치한 harbun(예전 hamburg와 harbun는 다른 구였으나 현재 harbun가 hamburg로 통합되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것과 더 시내인 hamburg에 위치한 것들도 있습니다.

-학업계획서, 어학성적, 각종 증명서 제출 : 해야할 것이 많긴 하지만 합격 후 오는 메일에서 지원 flow가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 flow에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되어서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 독일 도착 후 준비사항

독일 도착하고 나서 해야할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입주 후 계약서 받기(집주인 서명 필요) - 안멜등(거주지 등록) 후 거주증명서 받기 - 독일 계좌 개설하기 - 독일 보험 가입하기 - 학교 학생 등록 후 정식 입학증명서 받기(그 전에 받는 것은 임시 증명서입니다.) - 비자 발급받기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야하는 이유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단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인데,

-Anmeldung(거주지 등록) : Kundenzentrum의 외국인청에서 담당하고, 집주인 서명을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고, 거주증명서를 줍니다.

-계좌 개설 : 거주증명서, 입학증명서(임시 증명서 가능)가 필요합니다. Sparkasse, Deutchbank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증명을 해야하는데, 도시마다 정해진 1개월 필요 생활비 \* 총 체류 기간만큼의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슈페어콘토라고 돈을 묶어두고 월마다 일정 금액만 사용가능한 계좌로 개설해야 재정증명이 된다는 글들이 많을텐데, 저는 Sparkasse에서 지로콘토(girokonto)라고 그냥 한국의 일반 계좌와 같은 계좌를 개설했고 재정증명서만 은행

에서 받아 가져가니 비자 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사람마다 또 관공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되는데 자기가 모르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해서..) 미리 비자청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보험 가입 : 거주증명서, 입학증명서(임시 증명서 가능), 독일 계좌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사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TUHH에서는 공보험이 아니면 입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공보험 중에서는 저는 학교에 TK 사무소가 있어서 TK로 선택했고, 온라인 가입으로 10분만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학생 등록 전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식 입학 증명서를 받은 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 자격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험이 비싸긴 하지만 저의 경우 앰블런스를 탈 일도 있었고 한국 기숙사 지원을 위해 결핵 검사도 해야하는 등 사용할 일이 많았고 덕분에 거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분이라면 자궁경부암 주사가 모두 지원되니 맞고 가시는 것 추천드려요!

-학생 비자 발급 : 거주증명서, 정식 입학증명서, 재정증명서(슈페어콘토 혹은 지로콘토의 재정증명서), 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일을 하기 전 예약하는 것을 Termin이라고 하는데,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이 Termin이 필수라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9월에 Termin을 했는데도 12월에 날짜가 잡혔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줄 서면 Termin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Termin 줄과 그냥 일반 줄이 따로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자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쉐겐 조약 날짜를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또 90일이 지났는데 무비자상태일 경우 독일에서 다른나라로 이동이 불가능하니(국경 이동 시 복불복으로 검사합니다.) 비자 발급 시 정식 비자를 받기 전까지 출국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종이로 된 임시비자를 같이 줍니다.

## 귀국 준비

- Abmeldung : 안멜등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거주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Termin이 필요없으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
- 그 외, 계좌 닫기, 보험 해지, 학생 등록 취소를 마치면 끝납니다!
- 짐 관련 : 저는 유스 혜택으로 캐리어를 두 개 실을 수 있었지만 잠깐 여행을 하고 들어올거라서 미리 택배로 짐을 부쳤습니다. DHL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도 되지만 저는 독한배송이 더 저렴해서 독한배송을 이용했습니다!

## 5. 교환학생 생활에 대하여

### ① 학업

가장 놀랐던 것은 수강신청을 해도 시험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면 수강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등록을 따로 해야 성적이 나오고 또 대부분의 과목들이 기말고사만 쳤는데다 절대평가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시험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주로 들어야 해서 걱정했지만 전공 수업을 어느 정도 들은 3,4학년이라면 충분히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② 전반적인 생활

저같은 경우 4명의 룸메이트들과 주로 생활을 했고 주말이면 각자 고향의 음식을 번갈아 만들어주며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스페인, 타이완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독일 뿐 아닌 많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생활의 경우 독일 마트 물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한 주 20~30유로면 정말 풍족한 식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채소, 고기, 유제품들이 정말 싸서 각종 고기랑 허브류, 버섯, 파프리카, 요거트, 치즈 등등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적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외식만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맥주가 물보다 싸서 맥주 덕후인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가끔은 함부르크 내 양조장들이 많으니 나가서 간단히 한 잔씩 마셔보시기 추천드려요! 굳이 식사를 시키지 않고 맥주만 한 잔 마셔도 되는 문화라서 좋았습니다.

언어의 경우 아무래도 독일어가 모국어다보니 간혹 곤란한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를 잘 하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간단한 생활 독일어도 익혀두는 것이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훨씬 좋게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이나 은행 등 갈 일이 있으면 먼저 무슨 말을 할지 독일어로 미리 공부해갔는데 그러다보니 간단한 대화정도는 독일어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소통이 안되면 혹시 영어로 가능할지 물어보면 다들 애썼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기꺼이 영어를 해주거나, 영어가 가능한 동료를 불러주었습니다.

## ③ 여행

저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파리와 독일 내 베를린, 뮌헨 외 각종 소도시들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나라의 경우 플릭스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국제 학생증으로 할인 코드 발급받아서 다녔습니다.) 먼 나라들의 경우도 함부르크 국제공항에서 저가항공을 이용하고 혹은 플릭스로 베를린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 등 싼 가격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 6. 소감

교환학생을 가면서도 이제 4학년인데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

만 다녀온 지금은 그 시간들이 뒤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제 많은 것을 바꾸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준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과과는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 인생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들 없이 독일에서 오롯이 혼자서 살아간 시간동안 하루를 계획하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을 바라보는 시각, 다양한 문화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 등등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을 즐거운 경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이 성장하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순간마다 독일에 있었던 기억을 버틸 힘으로 삼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값진 경험을 제공해주신 공대 대외협력실의 많은 분들과 공과대학 총동문회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